

농지 위 전력 생산...“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

ECONOMY

2025년 7월 4일 금요일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대표 발전사례 보성 현장방문
구조물에 패널 설치 작물재배 병행...연 1433만원 수익

한국농어촌공사는 김인중 사장이 최근 보성군에 위치한 ‘보성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농가 소득 모델의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영농형 태양광의 실증 사례와 수익 구조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병만 보성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의 현황과 향후 확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영농형 태양광은 작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일조량을 흡수해도 광합성량이 더는 증가하지 않는 ‘광포화점’ 원리를 응용한 방식이다. 작물에 불필요한 여분의 햇빛을 전력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농업과 에

너지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농지 위에 3~4m 높이의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 소득 외에 전력 판매를 통한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 농지 보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김 사장이 이날 찾은 ‘보성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이러한 모델의 대표적 사례다. 전체 농지 2867㎡ 중 2145㎡에 99.7k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2024년 기준 벼 재배 수익 141만원에 발전 수익 1292만원을 더해 연간 약 1433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현장 적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최근 보성군에 위치한 ‘보성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농가 소득 모델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표준 시공 기준 마련, 경제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지 보전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아 잘 활용된다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며 “햇빛연

급과 같이 농업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다각도에서 고민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전KPS, 협력사 청렴간담회
반부패 실천의지 다짐·애로 청취

한전KPS는 최근 나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정비분야 협력회사 대표들을 초청해 ‘CEO·상임감사·협력회사와 함께하는 청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패·감질 근절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공정한 업무 환경 조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홍연 사장과 이성규 상임감사, 조영래 경영관리본부장, 김도윤 발전안전사업본부장, 전호광 원전사업본부장 등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과 각 협력회사 대표들이 참석해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청렴은 안전의 시작”이라며 “한전KPS는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부패 없는 조직,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한전-신한은행, 금융지원 협력 강화 업무협약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연계 해외 에너지사업 공동 추진

한국전력은 3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과 글로벌 채널 연계, 금융지원 협력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전은 그동안 국제 금융기관 위주로 금융조달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해외사업 수주가 확대됨에 따라 조달 방식의 다변화를 비롯해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한전이 추진하는 사우디 자푸라프 열병합 발전소 확장사업 금융조달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1억 달러 규모의 자본연계자임금을 단독으로 제공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금융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시장 공동 발굴 △사업별 금융지원 △정책 및 시장정보 공유 △현지사업 실행 협력 △리스크 관리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프로젝트별 담당 점포 지정과 현지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 해외



사업 전용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한전의 글로벌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그동안 해외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국제은행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뤄져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민간 금융기업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금융제공을 넘어, 한국전력과 함께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 가는 파트너십의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켄텍-MIT, ‘인공광합성’ 핵심기술 연구 착수

이산화탄소 액체연료 전환 효율 3% 달성 목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미국 MIT Yang Shao-Horn 교수 연구팀과 함께 ‘태양광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액체연료 전환 효율 3%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 국제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국제공동연구는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KEIT)이 지원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켄텍 에너지공학부 강영수 교수 연구팀과 MIT Yang Shao-Horn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도한다. 연구 기간은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연구 교류와 회의, 상호 연구실 방문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연구의 최종 목표는 태양 에너지만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메탄올 등 고부가가치 액체 연료로 전환하는 ‘인공광합성’ 기술의 효율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기술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가 성공할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7% 감축하자는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켄텍 연구팀은 전해질의 종류와 농도(pH)를 조절해 촉매 반응을 최적화하고, 실시간 분석 기술(in-situ ATR-IR)을 통해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액체 연료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

한전KDN, ‘청렴 Week’ 캠페인

청렴목 식수·교육 등 다채

한전KDN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나주 본사에서 ‘청렴 OK! KDN!’을 슬로건으로 한 ‘청렴 Week’ 캠페인을 진행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경영진과 노조위원장, 임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은 출근하는 임직원들에게 사과

등 간식을 나눠주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교육 △윤리경영담당자 워크숍 △청렴목 식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Live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특히 △청렴 북콘서트 △청렴 골든벨 △청렴 다짐잇기 △청렴 네컷 촬영 △청렴 마스크트 선정 등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K-농자재’, 태국 수출 교두보
시장개척단 230만 달러 MOU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태국에 ‘K-농자재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상담회를 열어 총 230만달러(약 31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농기계, 비료, 스마트농업기술 등 국내 농기자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업 수출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척단은 동남아 진출의 전략 거점인 태국을 대상으로 파견됐다.

양 기관은 사전 분석과 기업 교육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난달 24~25일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기업 15개사가 참여하고, 태국 및 인접국의 구매기업 52곳이 초청됐다. 총 219건, 2160만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12건, 230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시장개척단은 태국 농업청(DOA), 태국개발연구소(TDRI), 아태농업연구협회(APAARI) 등과 면담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진양기업은 최상의 제품을 광주·전남지역 상하수도 배관자재 수요처에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급 품목

- 수량계 보호통 제조판매
- HP에폭시 조인트
- 타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류
- 원형맨홀(648) 제수변 철개류
- 소프트실 제수밸브 및 새들분수전
- 기타 상하수도 기자재 일체

수량계 보호통

일반형

동파방지형

스테인리스유니온

지수전 보호통

지수밸브 13-50A까지 사용가능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각 사업소의 상수도 급수관용 자재 계약 및 납품
- 수량계 보호통 직접생산 확인
- 여성기업 인증
- 수량계 보호통 위생안전기준 인증(KCW-2017-0075)
- 환경표지인증(제18162호, 인증사유:자원순환성향상)

진양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두로37 (월전동)
대표전화. 062-946-0110 / FAX. 062-368-9919
(주)남형산업 상하수도 기자재 전문업체